

성삼 후 3주일(연중 11주일) 감사성찬례

집전/설교: 박경조 프란시스 주교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259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모든 일에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다스리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사무상 15:34-16:13 말 은 이
성 시 시편 92편 다 함 께

- 1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일,
○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었나-까?
 - 2 아침에 당신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당신의 미쁘심을 전하는일,
○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다시 없습니-다.
 - 3 열 줄 비파와 거문고를 뜯으며
○ 수금 가락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 4 주여, 당신의 업적 생각하며, 이 몸은 행복합니다.
○ 손수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환성을 울립니다.
 - 5 의로운 사람아, 종려나무처럼 위거지고
○ 레바논의 송백처럼 치솟아-라.
 - 6 우리 주님의 집안에 심어진 자들아,
○ 하느님의 뜰에 뿌리를 내리고 위거지거라.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2고린 5:6-17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르 4:26-34 말 은 이

설교 프란시스 주교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260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411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4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
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
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
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4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495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6월 16일)	다음 주일(6월 23일)
1독서	백남진	정연창
2독서	최미혜	박순호
대 도	윤희진	정국진
다음주일 전례독서	요기 38:1-11 시편 107 2고린 6:1-13 마르 4:35-41	
성 가	552 445 487 475	
복 사	허재원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2조> 김준우 조장은 류한신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6월 16일 성삼 후 3주일(연중 11주일) · 나해 · 녹색

제28-24호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느님

베냐민 지파에 속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될 의지는 없었으나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이야기도 사울과 비슷합니다. 다윗도 스스로 왕이 되길 꿈꾼 인물은 아니었으나, 하느님이 다윗을 먼저 선택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여덟 아들 가운데 장남을 먼저 보았고, 그의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긴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1사무 16:6).'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1사무 16:7)."

'겉모양'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눈'(아인)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중심)'으로 번역된 단어도 문자적으로는 '마음'(레바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람의 겉만 보지만, 야훼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여덟 형제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가장 약하고 비천한 인물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은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위대한 영웅을 찾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마르코복음서의 겨자씨 비유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겨자가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잘 뿌리 내리고, 잘 퍼지고,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과 현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고 진화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라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는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에서 시작되는 하느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고린토후서에서 말합니다(5:7). 사람과 사물과 현실을 '육신의 잣대'로 알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잣대'로 알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5:16). 겉모습으로만 보는 사람, 보이는 대로만 보고, 보는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낯은 것"이요 '옛 사람'이지, "새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5:17).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과 세상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 (6월 24일)

성인들 가운데 탄생 축일을 정하여 지키는 분은 성모 마리아 (9월 8일)와 세례자 요한, 딱 두 분입니다. 성모 마리아만큼 세례자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과 죽음에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중요성이 뚜렷합니다. 성서의 기록과 교회 전통은 세례자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와 늘 비교하여 역사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 아버지 즈가리야는 늙은 남성 제사장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요한의 수태고지를 믿지 못합니다. 그 탓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젊은 여성이고 시골 아가씨로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유명



한 마리아 송가를 부르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세대와 성과 지위와 행동의 전환이 뚜렷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라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징표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나쁜 행실을 그만두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을 기대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선언하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신과 함께 이미 와서 이뤄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그를 따르는 이들을 '벗'이라고 부르시고, 당신 자신과 하나가 된 '작은 그리스도'로 여기시며, 이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모본을 손수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 예언자 전통을 완성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한다"(요한 3:30)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선포'를 넘어서서 '말씀의 실천'으로 전환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권력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당신의 사목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역시 여러 권력자와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다가 권력자와 대중의 배신으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죽음의 역사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성모방문, 5월 31일), 태중의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기뻐 뛰놀았습니다. 역사의 공명이 이 두 분에게서 시작되었고, 한 분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기꺼이 옛 역사를 마감하며 죽음을 선택했고 다른 한 분은 그 희생을 이어받아 죽음과 부활로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이 역사의 전환을 보며 신학자 키티 보른카는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영원한 시간을 가르는 경계에 선 파수꾼이다." 세례자 요한과 함께 우리가 서 있는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감당하겠노라고 나선 파수꾼의 사명은 오늘 무엇일까요?

이번 주간 외올 말씀 4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훌륭한게 될 것일세(욥기 8장 7절).

교회소식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박경조 프란시스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전례와 사목

◆ 전례력 및 전례곡조 안내

성삼 후 절기(연중절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례색은 <녹색>, 전례곡조 <C곡>입니다.

■ 알림

◆ 전교우 여름수련회

일시: 7월 20일(토) ~ 21일(주일)

장소: 강촌 성요한 피정의집 (춘천시 남면 발산리 151-1)
모든 교우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교구 세실대학 '신자 사역자' 6기 모집

접수기간: 7월 22일(월) ~ 8월 3일(토)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입학식: 9월 1일(주일) 오후 4시

◆ 남부교구구 권역별 <여름성경학교>

일시: 7월 27일(토) 하루 / 장소: 수원교회

◆ 관할사제 안식년 - 안식월 (6.4~7.4)

최용준 신부님이 주님 안에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수요일 성서공부하는 안식월 동안 쉽니다.

◆ 6월 산본교회 집전/설교 담당자

6월 9일 이종민 바우로 신부님(선교교육국장)

6월 16일 박경조 프란시스 주교님

6월 23일 이종민 바우로 신부님

6월 30일 최돈순 바우로 신부님(사회선교국장)

◆ 제2회 성서 암송대회 (범위: 시편 1편)

일시: 7월 28일(주일) 11시 성찬례 후

◆ 금요 기도모임

6월 21일(금) 오후 7시에 있습니다.

◆ 소그룹(구역) 모임 시작 -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모임을 가져 주십시오.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채희영(17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400,000원
김준우/조장은 유군상 이윤식/백옥경
허예영/동소신

■ 주일헌금 168,000원
고미순 권순호 동소신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백옥경 유군상 유정훈 이윤식
최용욱 황선숙

■ 감사헌금 18,000원
류지민 조준행/이은경(건강)

■ 특별헌금 20,000원
유군상(나눔의집, 늘푸른복지관)

◆ 주간전례독서 (6월 17일 ~ 22일 / 연중 11주간)

	독서	복음
17일(월)	열왕상 21:1-16	마태 5:38-42
18일(화)	열왕상 21:17-29	마태 5:43-48
19일(수)	열왕하 2:1,6-15	마태 6:1-6,16-18
20일(목)	이사 63:7-9	마태 6:7-15
21일(금)	열왕하 11:1-4,9-20	마태 6:19-23
22일(토)	역대하 24:17-25	마태 6:24-34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 새교우(예비 신자) 이요한 전아영